

2021년 2월 7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6편 9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6편 9절)

◎ 찬 송 / 300장(통406) 내 맘이 낙심되며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데살로니가후서 3장 6~18절(신약p.336)

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3.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7.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 말씀선포 / 피해야 할 삶의 태도

사도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해 힘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교회 안에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단호하게 말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그들에게 응대해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 밖으로 선을 행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앞서고, 자신의 주장을 앞세워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더욱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데살로니가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으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피하여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1.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 본문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고 했습니다. 이전의 개혁신명 성경에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고 했습니다. 본문에 게으르게 행하는 것을 규모 없이 행하는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고 권면한바 있습니다.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게으르게 행하는 자, 규모 없는 자는 헬라어는 “아탁토스 페리파툰토스”로서 사실 이 정확한 의미는 “질서 없이 걸어가는 자”란 뜻으로, 본문에서는 주어진 말씀과 교회의 질서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질서하며 또 가르침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세워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교회 안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서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잘못된 확신에 빠져 현실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게으른 사람들, 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는 자들을 향하여 강하게 떠나라 명하며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고 엄중히 책망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현실을 떠나거나 피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은 세상을 떠나 저 먼 산속에서 따로 수도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 안에서 주어진 말씀의 질서를 따르고 사회의 질서를 따라 마땅히 성도로서 행해야 하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오히려 더욱 수고하고 노력해 삶에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세상의 일은 소홀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는 교회의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봉사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성도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은 세상에 속한 일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그로인한 잘못된 행동 때문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행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바른 관점으로 보고, 결코 교회의 사역이나 세상에서의 모든 일, 직장이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우리의 행함에 결코 구분이 없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기 때문에 직장 일도, 나라와 민족의 사명도, 교회의 사명이나 사역, 봉사, 기도만큼이나 거룩한 사역임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게으름과 나태한 삶의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전념하는 것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2.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선행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한 행실을 보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교회에도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수고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피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수고의 현장은 부담스럽게 됩니다. 부담이 쌓이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공급 없이 봉사에만 매달리면 낙심하기 쉽습니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 힘쓰느라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소홀히 하면 힘을 소진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훼방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수행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이와 같은 이유들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선행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부지런히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상에서 성스러운 일과 세속 된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가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모든 일에 주를 섬기듯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02장(통408)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 폐 회 / 주기도문